



8월 SRT 개통 전 운행 편수 최대한 늘려야

〈수서발 고속열차〉



복수 고속철 시대

오는 8월 서울 강남의 수서역과 목포역을 오가는 SR고속열차(SRT)가 개통함에 따라 광주와 전남지역이 KTX와 SRT의 복수 고속철 시대를 열게 됐다. 전문가들은 복수 고속철 효과를 증폭할 대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KTX 개통 1년 동안 지역관광 마케팅 등에서 고속철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고속철 차량 운행 편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KTX 개통 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사회는 뒤늦게 증차문제에 대처하는 등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SR고속열차를 운영하는 (주)SR에 따르면 오는 8월개 SRT 개통에 앞서 한달 전부터 승차권 예매가 실시된다. 그에 앞서 차량 운행편수가 정해진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다는 게 SR의 설명이다.

다만, 2013년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KTX 운행편수는 주말 1일 기준으로 모두 18회 운영될 예정이다. 2017년부터는 20회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노선을 이용하는 경부선(수

문화전당·비엔날레 등 연계

관광객 유인 킬러콘텐츠 시급

항공 노선 폐지·감축 등

‘풍선효과’ 고려한 대책을

서-부산역)의 경우 모두 34회에 달한다. 운행횟수는 2017년에는 36회로 늘어난다. 광주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국토부 등에 증편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KTX 개통 1주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수 고속철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KTX 개통으로 하루 1만 5000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광주를 오가고 있지만, 개통효과가 광주·전남 지역경제·관광에 큰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광주·전남을 관광브랜드화 해서 타 지역 관광객들을 끌어왔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KTX를 활용한 ‘아트투어 남행열차’를 15차례 운영했으나, 이를 이용한 외지 관광객은 455명에 그쳤다. ‘메르스’ 여파가 컸기 때문이지만 썩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

올해는 코레일측에서 운영하는 관광열차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어서 올해 아트투어 남행열차를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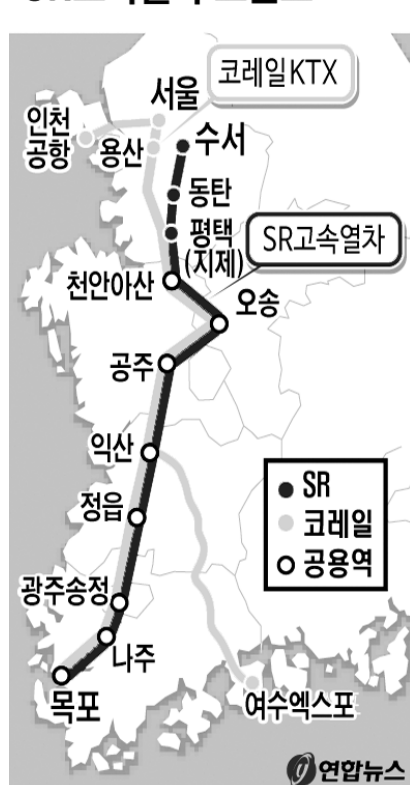
강신경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비엔날레 등을 아우르는 관광브랜드를 만들어 내지 못한 한계 때문에 KTX개통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관광객을 광주·전남 지역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빅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도시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광주 송정역 주변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송정역 주변을 문화적으로 재창조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일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X개통에 따른 ‘풍선효과’도 광주지역에 적잖은 파장을 미친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할 사안이다. KTX에 인파가 몰리면 서 항공사들은 울상이다. 대한항공(KAL)은 “연간 40억원의 적자를 방지할 수 없다”며 지난 27일 광주~김포 노선을 폐지했다. 아시아나도 KTX 개통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광주~김포노선을 하루 왕복 5회에서 3회로 줄였다. 결국, 고속철 시대가 열리면서 항공편이 줄어드는 탈감지 않은 현상도 빚어진 것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SR고속열차 노선도



수서~광주 송정역 75분

KTX·SRT 골라 타는 혜택

서울 강남의 수서역과 목포역을 오가는 SRT(SR고속열차)가 오는 8월 개통된다.

지난 2011년 착공한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간(61.1km)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8월 수서-목포간 SRT가 본격 운행된다.

모두 3조원이 투입된 이 노선에서는 KTX가 수서역에서 동탄역을 경유해 평택에서 기존 KTX노선(호남선)과 합류, 광주 송정역까지 운행한다. 공주와 익산, 정읍, 나주, 송정역, 목포역에도 열차가 정차한다.

SRT 수서~목포 노선은 국내 최초로 복수사자차 체제가 도입돼 경쟁시대를 여는 노선이다. 기존 코레일과 SR 등 두 개사가 노선을 운영하게 됐기 때문이다. 시·도민들은 자신들의 목적지에 따라 KTX 또는 SRT를 골라탈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서울 강남권은 수서역, 울산권은 용산역 경유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수서~평택 노선이 개통됨에 따라 기존 노선(용산~송정역)에서 벗어났던 탑

승객 병목현상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통 시점에 주말 1일 기준 모두 18회 열차가 운행되고 오는 2017년부터는 20회로 증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구간을 달리는 열차는 모두 300km/h 이상 속도를 내는 고속이다.

광주시의 예측에 따르면 이 노선의 요금은 현재 용산~광주 송정역 구간(4만 6800원) 보다 10% 가량 저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광주~송정역 구간(303,8km)보다 총 거리가 짧기 때문이다. 수서~평택 구간을 이용하면 광주 송정역까지 1시간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기존 노선은 평균 1시간 45분 걸려야 서울에 닿을 수 있다.

SRT는 ‘SRT’는 ‘SR’이 운영하는 ‘열차’(SR Train), 시속 300km로 목척까지 빠르게 운행하는 ‘Super Rapid Train’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SR(수서고속철도)은 애초 국토교통부에 고속열차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운행면허를 발급받았다. SR은 철도공사 및 공공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고속철도 운영사이다. /윤영기자 penfoot@

광주시·10개 지자체 ‘빛고을생활권 행정협’ 상생 TF팀 꾸린다

남도풍류 나들이사업 등 점검

광주시를 중심으로 인근 11개 자치단체가 참여한 제2회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가 상생·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전문가 등을 포함한 TF팀을 꾸리기로 했다.

광주시는 30일 서구청에서 제2회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를 열고 2017년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모임에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나주시, 화순·장성·함평·담양군 등 11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와 인접 5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선도사업과 12개 협력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했다.

국가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선도사업은 올해 선정된 ‘남도풍류 나들이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 구축 ▲한뿌리생활권 지역경제순환증진 프로젝트 ▲생활권 중심의 상생 로컬푸드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이다.



30일 광주시 서구청에서 열린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등 광주와 전남 일부 단체장들이 손을 맞잡고 지역상호 상생협력을 다지고 있다.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는 광주지역 5개 자치단체와 광주 인접지역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는 중앙정부의 생활권 선도사업과 생활권 자치단체 간 행정 협력을 위해 지난 2015년 9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구성됐다.

특히, 광주시는 장사시설에 대해 생활

권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해 11월부터 시설 조성, 분양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회의에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이

라며 “실질적 교류협력을 통해 생활권 내 지역의 가치와 비전을 극대화하고 유익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남광주야시장은 ‘아시아 푸드 시장’

다문화음식·향토음식 특화...공연·체험프로 구성

남광주야시장이 다문화음식과 남도 음식을 융복합한 ‘아시아 푸드’와 남광주야시장의 수산물용 ‘향토푸드’ 중심 야(夜) 시장이 개설된다. 기존 대인시장은 수공업 예술품, 새로 조성할 남광주 야시장은 먹을거리 중심으로 특화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30일 “남광주야시장이 조성되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푸른 길 등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한 특색있는 야간 관광명소가 탄생할 것”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남광주 야시장 조성사업에는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이 투입된다. 시가 ‘아시아 푸드’ 시장을 개설하는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광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다문화 가정에 일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넘치는 지역 청년상인에게 창업공간도 제공키로 해 당일

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광주 야시장은 다양한 먹을거리와 함께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으로 짜일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동구청에서는 남광주야시장·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와 함께 야시장 조성 추진단을 구성해 올해 2월부터 기본설계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전문가들의 중지를 야시장 조성 추진단에 전달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전주 남부한옥마을야시장, 부산 부평강동야시장을 넘어서는 남광주의 옛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전국적인 야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자 penfoot@

행복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도시

약속된 미래 **빛가람**
Promising Future **빛가람**

전남개발공사 공모 제2016 - 19호

1. 공급대상 토지

공급용도	블록지번	면적(㎡)	공급가격(천원)	공급방법	신청예약금	공급조건	토지사용 가능시기
산학연 클러스터	클20-221B/L 외 9필지	1,691.9~9,923.1	654,766~3,840,240	추첨	3천만원	2년 유이자 분할납부	즉시

2. 매입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전남다도로부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자

지구명	유치업종	용지	기준	순위적용	유치시설 및 기능
3지구	정보통신	클 8	1순위	해당지구 우선	이전기관 연계기업·연구·지원기관
			2순위	해당지구 우선	첨단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지역전략산업, 벤처기업 등 집단입지시설, 산업진흥시설, R&D기관, 신기술, 녹색인증기업, 우수그린비즈니스, 유망중소기업, 이노비즈 등에 선정된 기업
			3순위		각지구 해당업종

3.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공급일정			장소
	1순위	2순위	3순위	
사업계획서 제출(현장참수)	'16. 4. 11(월) 10:00~17:00	'16. 4. 26(화) 10:00~17:00	'16. 5. 11(수) 10:00~17:00	전남개발공사 분당보상사업부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발표	'16. 4. 19(화) 16:00	'16. 5. 3(화) 16:00	'16. 5. 18(수) 16:00	
신청 및 신청예약금납부	'16. 4. 20(수)~21(목) 10:00~16:00	'16. 5. 4(수) / 5. 6(금) 10:00~16:00	'16. 5. 19(목)~20(금) 10:00~16:00	개별정보
추첨	'16. 4. 22(금) 10:00	'16. 5. 9(월) 10:00	'16. 5. 23(월) 10:00	
당첨자 발표	'16. 4. 22(금) 14:00	'16. 5. 9(월) 14:00	'16. 5. 23(월) 14:00	전남개발공사 분당보상사업부
계약체결	'16. 4. 25(월) 10:00~17:00	'16. 5. 10(화) 10:00~17:00	'16. 5. 24(화) 10:00~17:00	

※ 자세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www.jndc.co.kr)를 참고하십시오.

※ 신청클러스터용지 5,6,7,9,13블록 28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공고중으로 본 공고와 동일한 공급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62-360-3175~6

전남개발공사 (061) 280-0641~4
58566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